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2시부터 조화순 목사님이 들려주는 <생명과 평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서야 할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참여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소장: 김준우 목사)가 개최하는 월례 포럼이 21일(월) 오후 5시 30분부터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희망 제작소>의 박원순 변호사가 <교회, 한국사회의 희망일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선물인 성경·찬송가 합부를 교우들에게 미리 나누어 드립니다. 속장과 인도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사진전이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00주년 행사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1층 로비에서 받아 가셔서 초청하실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념주일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행사가 계속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환경을 살리는 일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합니다. 생의 무게를 지고 비틀거리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주님, 사람살이의 마당은 점점 소금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조차 끌어안았던 마을 공동체는 사라지고, 승자독식 사회의 진군가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고 하신 주님,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어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미하며 사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준호 곽혜자 김신옥 박병구 임원민 임수연 임주빈 최현옥 전월수  
장성호 조관행 홍선희 양재성 권미숙

**월정헌금:**

김남중 오복순 김정애 이갑재 이재구 황선희 이정은 전영자 조순덕  
황경순 이은자 김용태 박정숙

**감사헌금:**

윤석철 장혜숙 김철수 구자훈 박범희 박미영 강미라 김영한 이희균  
최종원 고유비 안길상 이형숙 정한구 오래된미래 무명5

**생일감사헌금:** 구성실 김정애 김주현

**캄보디아 우물헌금:** 윤미경 윤수진

**100주년 기념헌금 :**

방문성 박혜경 이영순 윤성중 김윤정 오현정 조항범 이증자 박석희  
조항미 안홍숙 제5여성교회 무명1  
(100주년 헌금 누계 : 177,945,000원)

	장혜숙	장혜숙	장혜숙	정두리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서정순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정복순
	문영혜	박경선	곽혜자	김수연
	안정숙	박애순	안정숙	박애순
	박홍재	곽권희	이인섭	오정숙
	박효선	허정윤	김현주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최희정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임수연
	백혜숙	정옥영	김희우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송양진	유경순
	이영란	박미영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조항미

## 사랑의 라면 음악회

“입장료 대신 라면 다섯 봉지로 음악회를 즐기고 이웃도 도와주세요.”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사랑의 라면 음악회’를 열고 있는 전북 익산의 산성교회 오케스트라가 12일 오후 7시 전북 익산시 슴리문화예술회관에서 3회째 공연을 한다. 라면 값이 한 개 600~700원이니 입장료는 3000~3500원에 해당한다. 그 동안 6천~7천 봉지가 모아졌다.

초등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자원봉사자 60명으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는 1998년 교회 설립 2돌을 계기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바이올린과 첼로 등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꾸려졌다. 교회에서 각종 악기를 배운 어린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며 실력에도 자신이 분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주회로 보답을 하기로 했다. 이들의 기특한 생각에 전문 연주단과 주부, 회사원, 교사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2001년부터는 정기연주회를 시작해 지금까지 8차례 꾸준히 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동·서양의 명곡과 성가곡, 만화·영화 주제곡, 동요, 영화음악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곡을 선보인다.

그 동안 익산시 왕궁면의 한센인촌을 비롯해 무주, 군산, 충남 부여 등지를 찾아 연주봉사를 했다. 달마다 두 차례 익산역과 배산체육공원에서 ‘이야기가 있는 사랑 연주회’도 열고 있다. 이 교회 송홍준(43) 목사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찾아갔을 때 찬밥을 그냥 먹기 힘들어 라면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들 호소해 라면음악회를 시작했다”며 “수준 높은 음악도 즐기고 따뜻한 온도도 나눌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08년 4월 10일 한겨레신문, 박임근 기자)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향해 돌아서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멘. 우리 생의 가장 큰 보람은 주님의 뜻을 행함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려는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 하나로 이 모진 세상의 파도를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조화순 목사의 <생명 이야기>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사회 / 김기석 목사	기도 / 신윤정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민주 선생 김재흥 목사	인도자 이동천 집사

4월	영접위원	구성실 김용길 이종현 박규석 최영혜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김근중(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켈트 기도문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  
당신의 천사들로 잠든 우리를 지키게 하소서.  
침상에 누워 쉬고 있는 우리를 맴돌며 지켜보게 하소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 꿈속에서  
당신의 빛나는 참모습을 보여주게 하소서.

오, 우주의 가장 높으신 왕자님.  
모든 신전의 가장 높으신 사제님.  
어떤 꿈도 우리 휴식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악몽도 우리 꿈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시며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도 우리 잠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소서.

낮은 고된 노동으로  
밤 기도를 성결하게 만드시고  
밤의 깊고 부드러운 잠으로  
우리 노동을 신선하게 만드소서.



오, 생명나무 임금님.  
가지 위 꽃들은 당신 백성이요  
노래하는 새들은 당신 천사들이요  
속삭이는 미풍은 당신 영입니다.

오, 생명나무 임금님,

저 꽃들로 하여금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 새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당신 영으로 하여금 부드러운 숨으로 만물을 덮게 하소서.



오, 하나님의 아드님, 저에게 기적을 일으켜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당신은 붉은 피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시니, 제 마음을 회개 해주십시오.

해를 빛나게 하고, 얼음을 반짝거리게 하고, 강을 흐르게 하고, 연어를 뛰어오르게 하는 이는 당신이십니다.

당신의 숨씨 좋은 손은 밤나무를 꽃피게 하고, 콩을 황금색으로 익게 하며, 당신의 영은 새들의 노래와 벌들의 뿜뿜거리는 소리에 곡을 달아 줍니다.

당신 지으신 세계가 온통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적들 위에 기적 하나 더 일으켜 제 영혼을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제 가슴의 주님, 저를 설레게 하는 비전을 주시어,  
일할 때나 쉴 때나 항상 당신을 생각하게 하소서.  
제 가슴의 주님, 저를 안내하는 빛을 주시어,  
집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항상 당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제 가슴의 주님, 저에게 방향을 가리키는 지혜를 주시어,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항상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내게 하소서.  
제 가슴의 주님, 저를 힘있게 하는 용기를 주시어,  
벗들과 함께 있거나 적들과 함께 있거나 항상 정의를 선포하게 하소서.  
제 가슴의 주님, 저를 공허한 칭찬에서 건져주시어,  
항상 당신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제 가슴의 주님, 저를 세속의 풍요에서 건져주시어,  
항상 하늘의 보화를 구하게 하소서.  
제 가슴의 주님, 저를 군대의 무장에서 건져주시어,  
항상 당신의 보호 아래 있게 하소서.  
제 가슴의 주님, 저를 허무한 지식에서 건져주시어,  
항상 당신 말씀을 공부하게 하소서.

제 가슴의 주님, 저를 자연스럽지 못한 쾌락에서 건져주시어,  
항상 당신의 놀라운 창조세계에서 기쁨을 찾게 하소서.  
제 가슴의 가슴이신 주님, 저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제 생각과 느낌을 다스리시고, 제 말과 행동을 다스리소서.

--이현주 목사가 옮기고 엮은 <<세기의 기도>>(삼인)에서 옮겨왔습니다.  
우리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데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